

“포교상이 불심 북돋아 줘요”

포교·전법상 시상이 포교효과를 높이는 촉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상을 통한 포교는 90년 이후 경기도 화성 신홍사(주지 성일) 포교대상을 비롯 도심포교당, 불교대학, 신행단체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 창립기념일 등 주요법회를 통해 실시되는 시상은 전법·포교·정진·봉사상 등이 주를 이룬다. 올 성도절 주간에도 사찰과 단체들은 시상식을 개최하는 등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은 “포교상은 포교사를 배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수상자들도 “더욱 정진해 포교와 전법에 매진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수원포교당(주지 성관)은 24일 제10회 포교대상 및 제3회 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남성 및 가족단위 포교활동을 펼

사찰서 공로·정진·봉사등 각종상 시상

“포교사 배출과 동일한 전법효과” 인식

도심포교당·불교대·신행단체로 확산

친 권중서씨가 포교대상,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친 김보제화씨가 봉사대상을 각각 받았다. 권중서씨(45·거사림회 총무)는 “가족단위의 불자들이 신행 포교에 적극 나설 때 불교의 위상이 강화된다”며 가족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광명시 금강정사(주지 지홍)는 24일 창립 8주년을 맞아 활발한 포교와 봉사활동을 펼친 홍성귀씨에게 모범봉사상을, 대우사원주 지역협의회(회장 원명)는 24일 성도절복축대

법회에서 포교와 복지분야에 공로가 큰 불자들에게 공로패, 감사패 표창패를 각각 수여했다.

전북불교총연합회(회장 도영·금산사주지) 6일 전북불교회관에서 제2회 전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북불교총연합회는 지난해부터 전법활동에 매진해 온 스님 1명과 재가신도 1명에게 전법상을 수여한다. 전북불교대학(회장 강건기)은 구랍 12일 개교 10주년을 맞아 제1회 포교대상 시상식 개최

했다. 불교대학에 10여명을 입학시켜 첫 수상으로 선정된 이인숙씨(불교학과 10회)는 “주위에는 불교를 알고 싶어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은데 대부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주춤거리고 있다”며 포교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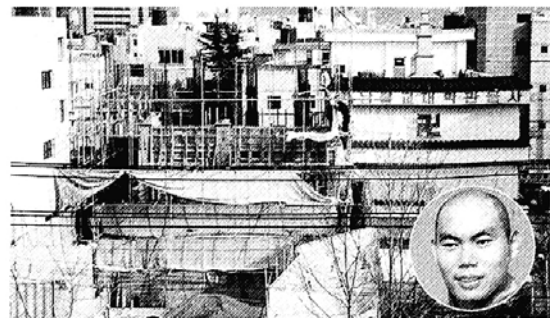
대구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도 매년 입학식이 끝난 후 신입생 포교에 공로가 큰 학인에게 포교상을, 3천배, 1백일기도법회에 하루도 빠짐없이 동참한 학인에게 정진상을 수여한다.

이밖에도 조계종 포교원은 일반포교(어린이·청소년·대학생·청년·일반신도)와 특수포교(군·경찰·공무원·장애인 등)로 나눠 포교대상을, 대구불교사회복지회(회장 지도)는 자원봉사상을,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는 포교대상을, 부산 불국토(이사장 정관)는 자랑스런 불자상을, 부산 불심홍법원(이사장 하도명화)은 홍법대상을 각각 수여한다.

새로운 포교법으로 확산되고 있는 각종 전법 포교상 시상식은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opia.com)

우리철 불사 관음사 영남불교대



◇중공관 공법을 사용해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되는 영남 불교대학은 5월 최종 완공될 예정이다. 원내는 주지 우학스님.

교육불사 이끌 매머드 학사

대구경북지역 재가불자교육의 일반지임을 자임하는 관음사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 대구시 남구 봉곡3동)이 새 학사를 신축하고 있다.

3층으로 된 현재의 법당이 낡고 비좁아 매학기 3천명에 육박하는 신입생을 수용하기에 어렵게 되었는데, 지난해 92년 3천만원짜리 전세로 출발한 영남불교대학이 불과 6년 만에 새로운 건물을 세우게 된

35억원 들어 5월 완공

기동 없는 첨단공법 활용

예식장·문화관등 들어서

것은 스님의 원력이 남다른데, 매일 사찰 재정을 신도들에게 공개 등 사찰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거행한 신축법당은 오는 2월 1차 공사를 끝내고 학생 일부를 수용한 후 5월까지 2차공사를 마무리하여 나머지 학생을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총 35억원이 들어 대지 6백평 연건평 1천5백여평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고 있는 신축법당은 중공관(中空管) 공법이라는 첨단특수공법을 사용했다. 이 공법은 속이 텅 빈 중공관을 연결하여 천장을 마

감함으로써 기둥을 없애고 층고를 낮출 수 있는 등 공간활용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새 건물의 지하에는 공양간겸 휴게실이 들어서며 1층에는 사무실과 “좋은인연” 출판사 등 각종 부대시설이 들어간다. 2층은 예식장겸 문화관으로 사용되며 한편에는 납골당 모형이 전시될 예정이다. 3층과 4층은 법당겸 강의실로, 5층은 원불이 모셔진 기도 전용 법당으로 사용된다. 특히 전용 법당은 석가모니불을 비롯 관음·지장 등 1만기의 불보살로 장식될 예정이다.

포교사고시 합격생과 학생수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교육불사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영남불교대학이 7년 만에 풍나물교실을 창신하면서 명실공히 지역불교의 새로운 전당으로 거듭나고 있다.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장가 안가길 잘했네”의 자자이기 하여 나머지 학생을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opia.com)

금강자비회 사단법인으로

마산·창원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온 금강자비회가 사단법인 금강자비회(회장 정무주)로 재탄생했다.

금강자비회는 15일 마산 사이버호텔에서 마산창원불교연합회 회장 경호스님, 김인규 마산시장, 후원회이사 등 사부대중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금강자비회 설립기념식을 가졌다. 금강자비회는 총재인 일타스님이 “금강석 같이 깨어지지 않는 자비행을 실천하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에 걸맞게 마산 결핵병원, 창녕 나환자 마을 등에 매년 1천여만원의 후원금과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매년 7월에는 큰스님 초청법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포교도 빼놓지 않았다.

87년 설립된 금강자비회는 각 사찰의 신도회장 출신이나 신도회 간부로 활동중인 여성불자들을 주축으로 매월 모임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금강자비회는 사단법인 설립을 계기로 특근노인 10세대 후원, 영세가정 자녀 장학금 지원, 장애인 사랑의 보자기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저소득층과 소외 이웃에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천미희 기자

청련암 지장보살 점안

단양 청련암(주지 종덕)은 2월 8일 대웅전에서 복원불사를 위한 1백일 기도회와 불교 및 지장보살 상 점안식, 지장보살 후불탱화, 관세음보살 후불탱화 봉안식을 병행한다. 청련암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복원불사를 위한 1백일 기도 및 부처님 진신사 친견법회를 병행했다. 김중근 기자

1000원 작은 정성 부처님 세상 만듭니다

1천원의 작은 실천으로 훈훈한 세상 만듭니다.

작은 실천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 운동은 1천원의 적은 보시금을 여럿이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전개되고 있다.

전주 전북불교회관(원장 회일)은 올해 처음으로 1000원으로 10배 자비실천운동을 연중 행사로 실시하고 있다. 10배 자비실천운동은 불자들이 돕고 싶은 계층을 선별해 보시할 수 있도록 법당에 6종류의 보시함을 설치했다. 보시함은 우선 도움이 가장 절실한 심장병어린이, 실직자,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북한어린이, 청소년·군포교기금 등으로 분류했다. 신도들은 원하는 보시함에 보시를 하게 되면 전북불교회관은 정기적으로 해당 단체에 전달하거나 관련 행사를 통해 신도들의 자비행을 전하게 된다. 보시금의 투명성을 위해 각 항목별로 그래프를 만들어 모금현황도 공개할 예정이다.

전북불교회관은 25일 성도절을 맞아 6개 부문의 불우이웃을 위한 등불 밝히기 운동을 펼쳤다. 1인1등(3천원)밝히기를 통해 모인 기금으로 평화동 장애인회 회원들을 초청, 사찰담사

전북불교회관·우리는 선우 등

클럽·보시함 만들어 연중모금

소년가장·실직자·불우노인 도와

보냈다. 전북불교회관 교계의 각종 행사에 이같은 행사를 반드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원장 회일스님은 “뉘는 감이 있지만 불교계에서 실천해야 할 당연한 일이다”며 “보시함 설치로 인해 사찰재정이 감소 했지만 어려운 이웃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선우 전주지회(지회장 오종근·호원대학교 교수)도 23일 천천클럽(千千club) 발족식을 갖고 1천원으로 불우청소년을 돕자는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천천클럽은 한달에 1천원씩을 1년 단위로 보시하는 사회사업이다. 후원금은 전주소년원을 비롯 지역내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전액 지원된다.

전주 룸비니유치원(원장 이수숙) 원생들도 불우노인돕기 운동으로 매일 10원짜리 동전을 모아 적립하고 있다. 원생들은 6월말경 노인들을 찾아 재품찬치를 벌일 계획이다. 김중근 기자

구미 모례정 일대 성역화

신라불교 초전지...올해부터 유적등 복원

신라 불교의 발상지로 확인된 구미시 도개면 모례정(경북도 문화재자료 제296호)과 모례정자의 집 등 불교 유적이 올해부터 불교성지로서 본격 개발된다.

구미시가 지난해 한국교원대 박물관(관장 정영호박사)에 도개 2리 일대에 대한 ‘신라불교 초전지역 학술조사’를 의뢰한 결과,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여러 종류의 옛 문헌에 기록된 신라불교 발상지임이 입증됐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모례정자의 집을 재현하기 위해 지난

해 말 3천만원을 들여 문화재 설계 전문업체에 설계를 맡겼다. 올 6월 중 설계도가 나오는 대로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구미시와 대각회(회장 도문스님)가 함께 추진하는 도개 2리 불교성지 조성사업은 대각회가 43억여원을 들여 모례정자의 집 복원, 불교 유물전시관, 교육관 설립 등 2007년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지연 기자(jygang@buddhopia.com)

군위 인각사 선당·일주문 복원

올부터...미륵당등 보수

일연선사가 삼국유사를 저술한 군위 인각사(주지 하종·사적 374호)가 복원된다.

군위군은 올해 3억5천7백여만원 들여 25평규모의 인각사 선당을 복원하고 미륵당을 보수한다. 인각사 일주문 복원과 사찰주변 단장은 연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김지연 기자(jygang@buddhopia.com)

담양 불교문화대학 개설

전통의식·불교문화 강의

전남 담양 용화사(주지 수진)가 불교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불교문화대학을 개설했다.

용화사 부설 담양불교대학은 1년 과정이며 불교전통의식실습, 불교문화현장학습, 사찰수련회 등이 불교문화전문가에 의해 강의가 진행된다. 졸업후에도 연수 및 특강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김중근 기자

경산시 문화지도 발행

유적분포 순례코스 답아

경산시는 최근 관내 문화유적을 상세하게 표시한 경산시 문화유적 안내지도도를 발행했다.

문화유적 안내지도에는 경산시의 연혁과 문화유적 순례코스, 각종 문화재 유적분포도, 강산수도, 유적지간 거리 등이 게재돼 있다. 안내지도는 각 관청 정류장 등에 비치할 방침이다. 김지연 기자

부산 육주사

소유권 분쟁

현우·진우스님 주장 갈려

59년 대취스님이 창건한 사찰사암 부산 육주사(강서구 대저동)가 진풍을 겪고 있다.

육주사를 조계종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현우스님과 (재)육주회 육주사임을 주장하는 진우스님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 분쟁의 핵심이다.

육주사는 현재(19일)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우스님이 주지권을 행사하며 육주사를 패쇄하고 있는 상황이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opia.com)

고침 207호 22면 ‘뉴질랜드에 첫 한국시찰 세웠다’ 기사중 ‘법륜사 신도회장’을 ‘법륜사 신도회장’으로 바로 잡습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자 내용

- ① 인간의 길흥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이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방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에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내용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흥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제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계보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중대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비한 작용

◎ 소 제
· 팔괘 : 고급 나무 목판 판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cm x 45cm

◎ 보급가 : ₩ 300,000 ⇒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해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지어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선물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복과 깨운과 건강을 불리고 보강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